당신 탓

구 종 회

내가 쓴 시집엔
꽃 시가
가장 많고
나의 사진첩엔
꽃 사진이
대부분이다

그 연유가 뭘까?
곰곰 생각해보니
당신 탓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당신이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다른 어느 곳 보다 먹이가 많은 곳이기에 출출한 배를 채우고 갈 수 밖에 없다. 먹이를 얻기 위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시를 써도 사진을 찍어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을 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나의 사진첩에도 꽃 사진이 대부분이다. 연유를 생각해봐도 가장 좋아하는 꽃이 당신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꽃은 발전하거나 번영 그리고 아름답거나 성숙하여 혈기가 한창인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온갖 궂은일을 마다 않고 함께 한 사랑이 묻어있다.

관심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은 신뢰와 미안함이다. 늘 우선으로 놓고 보상하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 없어 화자는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겸연쩍기 만하다. 그러면서도 멀찌감치 뒤로 물러앉으며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 가장 긍정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 제 철)

고추잠자리

김 회 기(수필가)

아직 햇볕이 따가웠다. 흰 구름 몇 점 떠다니며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빨간 고추잠자리 여러 마리가 유영에 여념이 없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에는 볕 좋을 때 더 말리려 빨간 고추가 한가득 널려있다. 초가지붕에는 새하얀 박 대 여섯 개 가 굴러 떨어질 듯 걸려있다. 아직 덜 익은 놈은 곧 다가올 추석 때 가을 송이를 넣어 박국을 끓여 차례 상에 올리고 식구들이 먹는다. 잘 영근 박은 바가지로 만들어 쓴다. 어른 키보다 더 큰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얼굴을 돌리며 익어 가고 마당가 코스모스는 넘어 질세라 서로 기대인 채 바람에 한들거린다.

처마 밑에는 제비 부부가 공들여 키운 오남매와 먼 남쪽으로 떠날 채비에 분주하다. 서까래에 박힌 굵은 못과 사랑 밖 늙은 밤나무 가지에 동여매어진 빨래 줄이 널따란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바지랑대에 떠 받쳐진 기다란 철사 줄에는 밭일 가기 전 어머니가 급하게 빨아 널은 나와 동생의 바지 두개 덩그러니 널려있다. 공중을 돌던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처마 밑에 앉아 노려보는 제비를 의식 못 하고 빨래에 걸터앉아 날개 짓이다. 사랑채 벽에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새벽 닭 홰칠 때 까지 감기는 눈꺼풀을 올리며 껍질을 깎은 감이 힘들었던 무게만큼이나 질서정연하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지난 주말 시골 고향에 잠시 볼일차 가는 길이었다. 차창 밖으로 미끄러져가는 만추의 바깥 풍경을 바라보다 평창의 외딴 시골집에 시선이 머물렀다. 텃밭에는 미처 따지 못한 고추들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ㄱ자로 허리가 굽은 백발의 할머니와 자그마한 체구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 무척이나 나를 따르는 백구가 처마 밑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졸고 있었다. 앞을 가로 흐르는 작은 개울에서 뿜어진 희뿌연 안개가 옅게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마당 귀퉁이 감나무에는 몇 개 남은 홍시를 까치 한 마리가 쪼아대고 있었다. 앞마당 멍석에는 고추가 가지런히 널려 있고 새빨간 고추잠자리들이 빨래줄에 걸린 바지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고추는 봄에 파종을 한다. 너무 가물어도 안 되지만 비가 많이 와서 땅에 수분이 많아도 안 되는 것이 고추 농사이다. 고추는 습기에 약해 비가 많이 오면 탄저병으로 익기도 전에 반점이 생기고 병들어 썩어버린다. 키우기 꽤나 까다로운 작물이다. 힘들게 수확한 고추가 초가지붕 위에 빨갛게 널려있다. 그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는 고추잠자리, 나도 고추잠자리가 되고파 어이없는 가슴앓이를 많이도 하였다.

고추는 수없이 많이 열린다. 번식력이 좋은 고추잠자리도 가을하늘에 헤아릴 수없이

많다. 부모님은 슬하에 6남매를 두었다. 그러나 일찍이 아들 둘을 양쪽 가슴에 하나씩 묻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며 아프고 고단한 긴 세월을 살아왔다.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여자의 일생」은 아무에게도 말 못 할 가슴에 맺힌 한恨 덩어리를 뱉어내는 것이었으리라.

유년 시절 여름이면 아버지가 잠자리채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잠자리를 쫓아 흡사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다. 하늘만 보고 고추잠자리를 쫓아다니다 보면 언제부턴가 뒷집 동갑내기 옥자가 내 뒤를 따라 뛰고 있었다. 뒷산 성황당까지 쫓아가다 보면 잠자리는 어느새 저 멀리 높푸른 바다 하얀 섬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잠자리채를 공중에 치켜든 채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허탈하게 돌아왔다.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훨훨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꾸다가 놀라 잠에서 깨기도 했다. 그런 날은 아침부터 키를 머리에 쓴 채 창피를 무릅쓰고 옥자 집에 소금 얻으러 갔다. 나도 잠자리처럼 하늘을 마음대로 날고 싶었다.

칠 학년이 넘은 지금 새삼 어린 시절 추억에 잠겨본다. 바지랑대 끝에 내려 앉아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고추잠자리는 어린 내 애간장을 무척이나 태웠었다. 공중만 보고 달리다 넘어진 무릎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다. 어쩌다 한 마리 잡히면 손등에 올려놓고 "알낳아라 알낳아라" 주문을 외웠다. 그러면 신기 하게도 엉덩이로 알을 낳았다. 그것이 배설물이었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알았다. 고추잠자리는 하늘과 나를 연결해주는 길잡이였다. 지금도 가을이면 푸른 하늘을 보며 문득고추잠자리가 되어 가슴을 빨갛게 물들이곤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가 들에 나가고 나면 집에는 노老 할머니와 나 그리고 다섯 살 아래로 첫돌 지난 남동생 이렇게 셋만 남았다. 구십이 넘은 증조할머니를 우리 집에서는 노 할머니라 불렀다. 아버지는 2대 독자였다. 남자라고는 아버지, 나, 동생 이렇게 셋이었다. 우리 집에서의 내 위상은 대단했다. 노 할머니는 굽어진 허리에 동생을 업고 천방지축으로 돌아치는 나를 따라 다니느라 노심초사했다.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뒤적여 말리는 노 할머니 곁에는 항상 바르는 비상약이 놓여있었다.

빈터가 된 옛집 앞마당 가운데에 섰다. 키 큰 바지랑대가 빨래 줄을 바치고 하늘을 찌를 듯 당당히 서 있던 그 자리이다. 철사 줄이 매어져 있던 밤나무는 커다란 짐승도 들어앉을 만큼 구멍이 뚫려 고목이 되었다. 곁가지 하나 겨우 살아있어 지난날 추억을 되새겨주고 있다. 고추를 심어 빨간색이던 텃밭은 동네 공용 주차장이 되었다. 그러나 고추잠자리는 여전히 내 머리 위를 돌아다닌다. 오래전 주인이 바뀐 옥자가 살던 집 지붕에는 오늘도 새빨간 고추가 가지런히 널려있다. 코흘리개 옥자가 그립다.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겠지…'

나는 모자를 벗어 공중을 맴도는 고추잠자리에게 살짝 던졌다. 놈들은 또다시 높푸른 바다 하얀 섬 속으로 헤엄쳐간다. 가을 바닷속으로 두둥실 나도 떠간다.